



오록도 칼럼

조 청 현  
부산경찰청 치안정보과 경감

컴퓨터, 인터넷이 발전하면서 예전과 다른 범죄의 형태들이 나타났다. 보이스피싱이다. 예전 개그콘서트에 나온 “많이 당황하셨어요? 돌았니? 니 이래 가지고 밥 빌어먹고 살겠니?”라는 유행어가 인기였던 적이 있다. 보이스 피싱이라는 범죄가 발생한 지 20년이 넘었으며, 최근 3년간 금융감독원과 경찰청의 통계에 따르면 피해액이 1조 5,000여억 원에 이른다고 한다. 2025년 1~3월 보이스피싱 범죄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7% 늘어난 5878건으로 피해액은 3116억원에 달한다. 건강 피해액은 5301만원으로 집계됐다.

몇 해 전 검사를 사칭하는 전화 한통에 현직 의사가 무려 41억원을 뜯긴 것처럼

보이스피싱 범죄는 평생 모은 전 재산을 한꺼번에 강탈할 수 있어 절도나 도난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치명적이고 파괴적이다. 더구나 보이스피싱은 계속 진화해 당하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다. 코미디 프로처럼 더 이상 어눌한 조선족 말을 사용하지 않는다. 속을 수박에 없는 어려운 사정에 놓인 대상을 골라서 집중적으로 공격하는 방법도 사용되고 있다.

휴대전화를 켜면 ‘하루에 몇 만원 또는 월 몇 천만원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광고나 주식리딩 투자 사기, 코인 투자 사기, 로맨스 스캠, 외국 군인이나 경찰이라고 주장하며 택배 등 소포 비용을 요구하거나 다른 요구사항으로 제시하며 멈출 수 없는 사람의 심리를 범죄에 이용한다.

피해자들도 다양해 나이 많고 배움이 적

은 노인들만 당하는 것이 아니라, 변호사, 공인회계사, 일반 직장인 등도 빈번하게 당하는 것이다. 지금 중·장년들은 젊은 시절 IMF(외환위기)를 겪었고, 2007년 서브프라임, 2020년 코로나 사태 등 짧은 시기에 힘든 경제 위기를 경험했다. 그러던 중 주식이나 코인으로 돈을 벌기도 하고 잃기도 했다.

부자가 되는 방법을 옛 고전에는 이렇게 기재하고 있다. ‘성실한 사람은 복을 많이 받지만, 벼락부자가 되려고 애쓰는 사람은 벌을 면치 못한다’. 쉽고 빠르게 돈을 버는 것은 복이 아닌 화가 될 수 있다는 말일 것이다. 그럼 금융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지를 알아보자

첫째, 직접 만난 적이 없는 사람과 휴대전화, 문자, 메신저, 이메일 등으로 어떠한

대화나 문자도 주고 받지 말자. 만난 적이 있는 사람에게 사기를 당하면 경찰에 신고나 고소라도 할 수 있는데, 모르는 사람은 검거가 어렵다.

둘째, 보이스피싱으로 의심이 되면 나의 어떤 정보도 알려줘서는 안 된다. 특히 주민등록번호나 비밀번호 같은 숫자를 절대 알려 주면 안 된다.

셋째, 상대방이 문자(카톡) 등으로 앱을 설치하라고 하면 이를 설치하면 안 된다. 링크 주소가 포함된 문자는 링크를 누르지 말고 바로 삭제하여야 한다.

넷째, SNS상의 얼굴 사진을 믿어서는 안 된다. 은행, 투자회사의 아무개 팀장, 아무개 상담원이라며 그럴듯하게 차려입은 사진이 보여도 가짜일 가능성이 높다.

다섯째, 스마트폰으로 모르는 사람이 돈

을 벌 수 있는 정보를 준다고 하면 즉시 연락을 끊어야 한다. 최근 많이 발생하고 있는 주식(코인) 리딩 투자 사기, 부업(물품 구매대행 알바 등) 사기 피해 유형이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사기꾼의 말에 속아 피해를 보는 것이다. 좋은 투자 정보, 좋은 부업 자리가 있다면 생면부지 남에게 호의를 베풀 이유가 없다. 전화나 인터넷 등 직접 만나지 않는 비대면 접촉으로는 결코 신뢰관계를 형성할 수 없다는 점을 숙지하고 가족이나 친구들과 소소한 좋은 만남을 유지하는 것이 행복의 지름길이다.



■독자칼럼

아이들에게 조상의 뿌리를 가르쳐야

퇴근해 집에 오니 공기가 싸늘했다. 화가 난 표정으로 서 있는 아내의 말을 들으니 이해가 갔다. 고향의 어머니께서 전화를 하셨는데 큰누이 “네 할머니 안녕하세요? 네, 네, 네” 이렇게 딱 네마디 하고 끊었고, 둘째남 역시 “네 할머니, 아니에요. 네, 네.”이렇게 통화하고 끊더라.

아이들을 불러 앉혔다. “너, 큰누부터 이리 와봐. 할머니, 할아버지 함자(衛子)가 어떻게 되는지 말해 봐” 순간 아이들의 표정이 굳어지면서 꿀 먹은 벙어리가 되었다. “네

가 너희들을 헛 가르치고 있었구나”라며 혀를 차자 큰 아이가 눈치를 보며 제 방으로 들어가 불펜과 노트를 들고 나왔다. “썌주세요. 한문도 함께요. 다시 외웁게요. 그리고 이제는 절대 안 까먹을게요.” 반성하는 모습에 더이상 화를 내기 어려웠다.

자신을 세상에 존재하게 한 조상의 뿌리가 흔들리고 있는 건 그냥 두고 볼 일은 아닌 듯 하다. 물질만능 세상이라고 하지만 젊은 세대에게 이런 개념들이 사라지고 있어 안타깝다. **유병양(옹호동)**

시부모님 모시는 게 즐거운 내 팔자

시부모를 모신 지 7년째다. 그래서인지 시부모님 안 계신 날 단 하루라도 편하게 쉬어보고 싶은 게 시부모를 모시는 모든 며느리들의 소망일 것이다. 드디어 내게 그런 날이 찾아왔다. 두 분이 대전 큰형님네로 열흘 정도 다녀 오시기로 하고 떠나셨다. 거기다 남편도 회사일로 제주도로 출장을 가고 4일 후 저녁이 되어서야 돌아온다. 속으로 쾌재를 불렀다. 그야말로 내 세상이 온 것처럼 느껴졌다. 그런데 겨우 이틀이 지났을까, 시간이 흐를수록 신나던 기분은 사라지고 웬지 모르게 마음 한구석에서 허전함이 느껴졌다. 집안이 너무 조

용하다는 느낌이 밀려왔다. 4일 후 남편이 오고, 6일째에 시부모님이 예정보다 일찍 집으로 돌아오신 게 아닌가. “대전이 너무 재미없다”며 대전이라는 도시가 체질에 안 맞는 것 같다고 하셨다. 두 분 열을 정도 다녀 오시기로 하고 떠나셨다. 거기다 남편도 회사일로 제주도로 출장을 가고 4일 후 저녁이 되어서야 돌아온다. 속으로 쾌재를 불렀다. 그야말로 내 세상이 온 것처럼 느껴졌다. 그런데 겨우 이틀이 지났을까, 시간이 흐를수록 신나던 기분은 사라지고 웬지 모르게 마음 한구석에서 허전함이 느껴졌다. 집안이 너무 조

독자의 소리

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원고와 지면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기다립니다. 채택된 원고에 대해 소정의 원고료를 드립니다.  
부산남구신문 편집실 ☎607-4077, 1225honey@korea.kr

남구청·남부경찰서 보이스피싱 예방 캠페인

갈수록 지능화·악랄화, 조직화 되고 있는 보이스피싱 범죄로부터 주민의 재산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보이스피싱을 예방 및 대처 방법을 소개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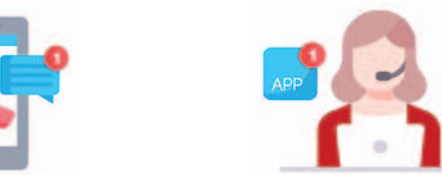
카드배송원부터 검사까지 조직적 사칭 ‘주의보’

2024년 보이스피싱 발생 건수는 2만 800여건으로 전년 대비 10% 가량 증가. 주요한 증가 배경으로 ‘신용카드 배송기사 사칭→고객센터→금융감독원→검사’로 이어지는 사칭 수법으로 피해가 급증하였음.

피싱 예방법

- 비대면 계좌 개설 안심 차단 서비스(금융기관 신청)
- 번호 도용 문자차단 및 소액 결제차단 서비스 (통신사 신청)
- 출처 모르는 앱 설치 및 URL 클릭 금지

※ 국가기관이나 금융기관은 어떠한 경우에도 자금조사, 자산보호 등을 목적으로 금전을 요구하거나 대출을 받도록 유도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공 : 차병철 남부경찰서 형사지원팀장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른 주택 등록임대사업자 주요 의무사항 안내

주요의무사항	내용	과태료(위반시)	문의사항
임대차계약 신고	계약일(또는 묵시적 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 관할 구청 신고	1천만원 이하	
임대료 증액 제한	직전 계약 후 1년 이내 인상 금지이후 5% 이내 인상 가능	3천만원 이하	※ 물건지 관할 기초지자체 (시군구청)
임대보증금 보증가입	임대 의무기간 동안 보증보험 가입 필수 (※ 면제사유 제외)	보증금의 10% 이하 (최대 3천만원)	
부기등기	임대사업자 등록 시 지체 없이 부기등기	5백만원 이하	
임대의무기간 준수	임대의무기간 내 무단매각 또는 본인 거주 불가	임대주택당 3천만원	※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기초지자체 (시군구청)

●문의 : 남구청 건축행정과 ☎607-4585~6

※ 기타 자세한 의무사항 및 법령서식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 렌트홈(<http://www.renthome.go.kr>)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산부·영유아 영양플러스사업 하반기 대상자모집 안내

- 신청기간 : 2025년 7월~10월 (대기예약제 운영으로 인해 유선으로 사전 예약 필수요)
- 모집대상 : 남구에 주소지를 둔 60개월 이하 영유아, 산후 6개월 이하의 수유부, 임신부
- 사업내용
  - 매월 1회 영양교육, 정기적 영양위험요인 평가
  - 쌀, 감자, 당근, 감정콩, 달걀, 우유, 분유 등 보충식품 가정배송
- 자격요건 및 신청방법
  - 남구청 홈페이지 [www.bsnamgu.go.kr](http://www.bsnamgu.go.kr)에서 대상자격 및 소득기준 확인
  - 보건소 내방하여 영양위험요인 평가 후 대상자격 판정
- 문의 : 보건소 2층 통합건강상담실 205호 ☎607-6454



우리지역 일자리 알림판

※ 대한민국 모든 일자리 정보(고용24)와 연계

(6월 26일 기준)

회사명	근무지	모집직종	모집인원	모집기간	임금조건	연락처
부산성소병원	대연동	영양사	1명	~ 채용시	월급 2,450,000원	633-1123
엔에이치 종합건설주식회사	우암동	건축사공 기술자	1명		연봉 60,000,000원 ~ 65,000,000원	723-1974
(주)금성전력	대연동	전기공사 기술자	1명		월급 4,500,000원	907-7891
부산성소병원	대연동	소방시설설비 시공기술자	1명		연봉 32,500,000원	633-1123
사회복지법인 문수복지재단	영호동	어린이집 시설장	1명		연봉 27,002,400원	628-6737
부산광역시 지적발달장애인 복지협회진구지부	영호동	장애인 활동지원사	1명		시급 10,030원	914-1550
영호종합사회복지관	영호동	조리사	1명		월급 2,122,700원	628-6737
령강노인종합복지센터	대연동	목욕 요양보호사	1명		시급 18,000원	624-9351
월가친성모자화센터	문현동	물리치료사	1명		월급 1,500,000원	639-1008
경성대학교	대연동	총무 및 일반사무원	1명		연봉 31,000,000원 ~ 32,000,000원	663-4082

**유엔남구 일드림센터** | 세상에 가장 아름다운 자리는 “일자리”입니다  
☎607-4347 ~ 8 Fax.607-4349 | 구인·구직 등록시 맞춤형 일자리 정보 제공

오록도페이 카드 유효기간 연장 안내

■오록도페이 앱 회원

① 유효기간 만료 전 연장하기

- 오록도페이 앱 > 메인화면 [기간연장] 클릭
- 안내사항 확인 및 유효기간 연장 동의 클릭
- 카드 유효기간 연장 완료!

※ 연장 가능 기간 : 카드 유효기간 만료 한 달 전부터 연장 가능(ex. 2025년 7월 만료 시 6월부터 연장 가능)

② 유효기간 만료 전 연장하지 못한 경우

- 유효기간이 종료된 카드는 연장 불가
- 새로운 카드를 발급받은 후 [돈 옮기기]를 통

해 남아 있는 금액을 새로운 카드로 옮기세요!

■ 금융기관에서 카드 발급받은 경우

(※ 앱 사용하지 않는 회원)

- 카드에 표기된 유효기간으로부터 60개월(5년) 자동연장 예정이며, 연장 완료 후 안내 문자 발송될 예정

■ 정채수당으로 지급된 무기명카드

- 오록도페이 고객센터 (1600-0429) 통해 연장

※ 유효기간 연장 방식은 회원 형태에 따라 다르니 확인 부탁드립니다!  
※ 기타 문의 오록도페이 고객센터 ☎1600-0429 / 남구청 일자리경제과 ☎607-4477



산파라 물파라 7월 산행을 떠나요



산악회	산행일시	산행장소	연락처
부산산오름회	7월 6일(일)	울주군 철구소	010-7223-2277
용산산악회	7월 13일(일)	대전 계곡산	010-4934-1016
원뿌리산악회	7월 20일(일)	대구 용문산	010-4564-7769
산이좋아산악회	7월 27일(일)	충북 영동	010-5699-5437

※ 산악회 회원이 아니더라도 산행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부산남구신문

1996년 1월 1일 창간

발행처 부산광역시 남구

48452 부산광역시 남구 못골로 19(대연동)

남구청 대표전화(051)607-4000 편집실(051)607-4077 유료광고 접수 4071

부산광역시 남구 홈페이지 : <http://www.bsnamgu.go.kr>

인쇄처 부산일보사 / 원단 <비매출>

본지는 신문윤리강령과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